

17 붕괴된 가족과 공동체의 새로운 대안

• 페르디난트 퇴니스에 의하면 인간 사회는 근대화 과정에서 자연이나 혈연, 우정으로 깊이 연결된 자연 발생적 게마인샤프트(gemeinschaft)가 이익이나 기능을 우선으로 추구하는 게젤샤프트(gesellschaft)로 점차 옮겨간다. 더불어 퇴니에스는 이 과정에서 인간관계 자체는 소원해진다고 생각했다. 기능을 중시하는 게젤샤프트에서는 사회나 조직이 일종의 시스템으로 가능하게 된다. 게젤샤프트에 소속된 개인의 권리와 의무는 '명확'해지며, 그때까지 인정에 약하고 감정적인 인간관계는 이해관계에 기초한 이성적인 인간관계로 바뀌어 간다.

• 고도의 경제 성장기부터 거품 경제 시기까지는 기업이 담당하던 게마인샤프트의 역할(종신고용, 연공서열, 노동조합등)은 무엇이 담당하게 될 것인가? 열쇠는 '소셜미디어'와 '두 번째 명함'에 있다. 회사나 가족의 해체에 대응해서 이른바 역사의 필연으로 새로운 사회적 유대의 형성이 요구된다. 낙관적인 관점이지만 소셜미디어가 그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걸어 본다.